

미래를 살리는 바른 헌신

열왕기하 4:38-41

최정웅 목사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중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작정한 것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힘이 있으면 꼭 도울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산업인이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힘은 없었는데,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교회에 부임한 때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장로회신학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등록할 돈이 없었다. 그때 나는 포천의 정착민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주일학교부터 모든 부서를 다 맡은 전임 교역자였다. 그런데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그때 김영자 권사님이라고, 고려대 교수의 부인이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조금 도와줬던 모양이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조영택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해 온 것이다. “최전도사, 등록했어?” 머뭇거렸더니, “못 했구나?” “네, 못 했습니다.” “나와서 나한테 와.” 내일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권사님 따라가 봐.” 이 권사님이, 자녀가 일곱 명이라고 했다. “전도사님, 저는 사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이분이 자기가 넉넉해서 돕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은행에 가더니 등록금 될 만한 돈을 찾아주면서,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다. 가서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산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내가 그분 이름을 40년이 넘었는데도 안 잊어버리지 않다. 내가 그때 교회에서 벌을 키웠는데, 큰 병에 아까시아꿀 한 병을 만들어서 일부러 찾아갔다.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성장해 왔다. 또 한 가지 기억은, 먼 삼촌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백부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에 갔는데, 삼촌이 이야기를 당돌히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한 번 등록만 시켜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였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지켜봤다. 다른 백부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우리는 돈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삼촌이 낙심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국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광주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게 된 것이다. 그때 내가 마음에, 가문에 장학기관을 세워야겠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산업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은 못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 우리 동네가 정착민촌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심방을 해 보면 교인들이 다 열심이 있었다. 그때 유경형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 그때 우리 교회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싸움을 벌였다가 나갔었고, 남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돈 만 원 현금할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정말 가난한 사람만 남았다. 그래도 교회를 나누어서 나간 목사님을 찾아갔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자. 한정된 지역에서 교회가 더 이상 나누어지면 전도에 지장이 된다. 그러지 말자.” 면목이 없으니까 이분이 말을 안 했다. 이분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1년 쯤 열심히 하니 나간 사람 숫자가 다시 채워졌다. 교회의 예산은 배가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예산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건축을 해서 빛이 좀 있지만, 경상비는 모자라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 예산에는 그럴 돈이 없으니까, 심방헌금을 모았다. 그 전까지는 심방헌금을 가지고 잔치를 하기도 하고 담임목사님을 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50원, 100원 하는 헌금까지 모아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갈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게 장학위원회의 효시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데, 지역에 울림픽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좀 넉넉했는지, 장학위원회를 위해 8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남편이 의사였는데 불신자였지만, 본인은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 그 돈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헌금하는 것을 조금씩 모으는데, 학생들에게 우리가 넉넉히 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 해는 300만 원을 주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주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몇 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변함없이 이 장학사역을 해 왔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운동 전체 교회 중에서 제일 역사가 길다. 50년 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 교회인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 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장자교회 담계,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잘 되고 번영해서, 넉넉한 삶을 사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다. 생애 동안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체의 모델이 되는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가 하는 장학사역의 모델이, 이제는 램넛트 전체를 돕는 헌신으로도 연결될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한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OMC장학금을 정기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단이 하는 독보적인 사역이다.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매년 수억 원의 장학금을 램넛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10억 원 정도 장학금을 주었다. 아직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어느 교단도 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마음을 담아서 본격적으로 하기 원하는 사역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진짜 인재를 키우고 램넛트를 키워서, 세계 살릴 엘리트로 키우자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담고 미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시간이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장학헌금을 낸다 안 낸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램넛트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헌신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미안하지만, 내가 장학헌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아직 담임목사보다 더 장학헌금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때 반현경 권사님이 낸 8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더 헌금을 한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램넛트를 키우기 위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1. 장학사역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장학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왜 장학운동을 해야 하는가?

(1) 첫째는, 램넛트 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남은 자, 후대에게 있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램넛트 운동에 승리했더니 세계를 살리게 된 것이다. 이 흐름을 아는 모세가 간절히 말한 것이 신명기 6:4-9의 말씀이다.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수하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을 걸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명령한 것이 요한복음 21:15-18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13에 말한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 영락교회가 돈을 쌓아두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정말이 기분나쁘다 하면서, 그 어르신이 한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장학금으로 해서 인재를 키웠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물론 모자원도 양로원도 고아원도 학교도 세웠다. 한경직 목사님이 병원을 못 세워주 아쉽다 하는 말을 했는데, 장학금을 세우는 사역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이 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되었지만, 인재를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간절히 와 닿았다.

(2)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장학사역을 해야 하는가? 복음 엘리트를 키워서 각 분야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지 않다.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국회의원, 과학자, 교육자, 군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부를 잘 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결론티 나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를 일으켜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엘리트는 찾기 힘들다. 지금 현실을 보면 느껴지지 않다. 그 좋은 자리에 가 놓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나와서 ‘이게 나라냐 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 결국 이런 인재를 키우지 못한 것이다.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 산 사람,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엘리트들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램넛트를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엘리트가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한 엘리트가 되게 해야 각 분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년 선교대회 주제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다. 창세기 41:38이다. “너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전략이다. 교회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한다. “너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사회 지도자들이 전부 무술, 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모든 재벌들이 거기에 굽신거리면서 돈을 수십 억씩 내면서 혜택을 보려고 했다. 여기로 램넛트 리더들이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민족과 세계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아이들을 돕자는 것이다. 내 아이 돕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 못 넘어서면 복음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내 친척, 내 아이, 내 편이라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사역이 되고 만다. 나는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게 아니다.

(3)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정상으로 램넛트들을 파송하고, 그 분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흑암의 흐름 자체를 꺾어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과학자 엘리트들 세워서 과학자를 살리려 보낼 뿐 아니라, 과학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죽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정치인 램넛트를 세워서 대통령, 국회의원 살리는 일도 해야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흑암의 흐름을 꺾어야 한다. 그 옆에 한 사람도 복음 가지고 정말 흑암의 흐름 꺾는 자가 없었던 것 아닌가. 어떻게든 비위 맞춰서 살아남고 혜택으려고만 했지, 정말 민족의 사활을 걸고 그 일을 해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의 흐름을 막아야만 한다. 믿는 자들이 없는 게 아니다. 국회에도 110여 명인가 있다. 정부 안에도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복음 엘리트가 없다. ‘너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금을 줄 때 깊이 생각해야 한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키워야 한다.

(4) 그래서 램넛트를 키우고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 속 전도자들이 전부 이렇게 후대를 키우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무엘이 다윗을,

엘리아가 엘리사를 키운 것이다. 이 엘리사가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7천의 선지 생도를 세운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경제를 두고 응답받은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다. 본문을 보면 선지 생도의 생활을 돕는 기적이 일어났다. 죽음의 독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음에는 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 다음 장에는 선지생도 센터를 세우려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다시 찾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램넛트가 훈련을 받는 일을 위하여 경제를 돕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정말 복음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으니까 포로 시대에 램넛트를 훈련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니까 모르드개,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처럼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줄줄이 일어나지 않나?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장학사역의 역사다.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는다.

2. 장학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장학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 중요한 것은, 바른 일꾼이 될 램넛트를 찾아서 도와야 한다.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그냥 공부 잘 한다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시스템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결국 훈련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 떠났다. 장학금만 받아 가지고는 떠난 것이다. 우리 OMC에서 후원하는 장학생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기들이 다시 OMC장학금을 낸다. 어떤 학생은 1억 원을 장학금으로 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장학금을 낸 사람도 나왔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만한 램넛트를 발굴하고 도와야 한다. 복음과 진도현장 시스템에서 제대로 자라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쓸 데 없다. 헛된 일만 하다가 헛되게 망한다. 사실은 나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대통령이 청년 때 아버지를 잃고 장신대를 들어가려고 찾아왔다고 하지 않나. 세 번인가 왔는데 답을 못 얻고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그런 주장에 빠져버린 것 아닌가. 건져낼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내치기만 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말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다가 온 그 사람을 살려낼 실력이 없다면 결국 와도 못 도와주게 된다.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못 해서 욕 먹은 바도 많다. 통합측에서 이단 해체를 위해서 다락방 연구를 맡았던 영남신학교의 교수가 이번에 발표했다. "한국교회가 이런 기준으로 이단을 만들면 안 된다. 아무리 연구해도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이런 연구논문을 써서 제출했는데 채택을 안 해주더라고 한다. 그 소식을 통합측 이단대책위원 한 분에게 보냈더니, 자기는 반대 안 했다고 말을 하더라. (웃음) 이런 아이를 돕도록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모기도 잘 모아야 하지만 쓰기도 잘 써야 한다. 괜찮은 아이들이 있으면 아예 장학 조건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훈련을 받을 때 장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인재를 키울 수 있다.

(2) 이렇게 해서 바른 아이들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지속해서 도와야 한다. 짧끔하지 말고 지속해서. OMC에서는 장학금을 한 번 주면 1년 내내 주고 더 주고 그런다. 우리 교회에서도 OMC장학금을 주지만, 협회장으로서, 또 올해는 총회장으로서 주는 장학금이다. 이런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고마움도 느끼면서, 의미 있고 가치있게 공부해서,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열쇠가 일심, 진심, 지속이다. 진짜 제대로 된 아이라면, 지속해서 체크해 주고,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고, 성공할 때까지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기억하라. 나하고 가깝고, 내 아이고, 내 친척이고 하나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말 믿음 있고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도와야 한다. 그래야 민족을 살린다. 내 자식이라고 자꾸 억지로 집어넣고, 아니면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나. 중직자 분들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진짜 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아이를 맡아서 끝까지 도우는 것이다. 한 사람만 만들어내도 된다.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었지 않나. 바울은 일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들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 그만큼 지속해서 생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 '내 아들아'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가 나온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복음 가진 자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3) 세 번째 방법이다. 전체가 도와야 한다. 누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램넛트 살리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나서야 한다.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법이다. 도량이 모여서 강을,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한두 사람이 특별히 하는 차원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 전체가 일어나서 모든 후대를 다 살리겠다 하도록 일어난다면 좋겠다.

(4) 그러면서 네 번째로, 기도로 도와야 한다.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다. 돈 없는 분

들은 정말 또 기도하라. 이번에 회록서기 목사님과 함께, 부총회장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대구에 같이 갔다왔다. "좋은 차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로 태우고 대구까지 가면서 이야기했다. "차를 신중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된 일이나 했더니, 심방을 갔는데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뭔가를 꺼내시더라고 했다. 할머니가 250만 원 정도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목사님 차를 사 드리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되어서 너도나도 모였더니, 5,400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를 사게 되었는데, 제네시스 차량을 사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다. 6천만 원 짜리 차를 현찰로 샀다고 한다. 그분의 교회가 신앙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다. 좋은 차 타면 더 훌륭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체가 마음을 담으면 그런 일도 하더라는 것이다. 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웃음) 우리는 그런 것 말고,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좀 모아야 한다. 우리의 장학사역은 돈을 주는 사역이 아니다. 기도팀이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 장학생과 사역자가 기도 팀, 미션 팀이 되어서 기도가 계속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금을 받은 램넛트들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떻게 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업 속에서 성령인도를 받고 있는지 포럼을 나누면서 관심있게 소통해야 한다. 특히 후원하는 중직자, 진도자들이 램넛트의 학비를 돕는 것도 좋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말 한 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 얼마든지 포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산업선교 팀이 47개가 되었다. 아들이 멘토링을 계속 하는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더라. 자리 빼앗길까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복음이 위대하구나 싶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아들에게도 영업 비밀은 안 알려주는 민족이다. 아버지가 만드는 신발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드는 신발이 안 팔린다.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더니,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한 마디 말했다. "털." (웃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분야의 전문인들이 후대들을 돕고 있다. 나는 듣지도 못했던 마이스 분야에도 전문인이 세워지더라. 나중에는 알았다. 지금은 전부 집을 떠나서 모여 사니까, 정도 없고, 돌보는 것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 전부 적이다. 자리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 절대 자기 비밀을 안 가르쳐준다. 그런 게 자주 아니겠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가 보이면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 내가 망하냐?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원수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도와주어야, 장학생들이 돈 받고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자라면서 대대손손 자라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장학생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더라. 주는 우리 교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영적인 상태의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장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장학생 출신의 램넛트 리더가 다시 장학생을 세우는 재생산의 리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중에서 먼저 시작되시기를 축원한다. 장학사역의 모델로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자, 말씀을 마치자면, 우리는 장학사역을 단순한 후원으로 끝내지 말고, 장학선교운동으로 사명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살리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지역의 숨은 인재를 돕고, 복음으로 살려내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램넛트 운동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을 세워서 미래를 살려야 한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장학선교운동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인재,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는 인재, 인류를 사랑하고 살리는 참된 인재를 세우는 장학선교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경제 기적도 이것 때문에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삶과 업과 경제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는다.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자. 최고의 목표를 세워서, 크게 잡고 생각해 보자. 100명의 선교사 파송한다 한니까 '허어.....' 하지 말고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다. 우리 후배는 내 말을 들었는지,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 가니까 메시지가 진하게 나오게 되더라.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하나님,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에, 종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의 꿈을 크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개혁교단의 장자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장학운동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모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중직자, 램넛트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이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교회에서 자란 램넛트들이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인재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위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